

신천지 미국 내 2천여 명..가정과 사회 무너뜨려

미국 내 주요 도시와 교회에 깊숙이 잠입해 있어

한국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하 신천지)이 남가주에 본부를 두고 미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신천지가 미국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 한인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천지 미주 본부인 남가주 지역 신천지 리더급 신도들이 교주 이만희 씨 친형의 장례로 지난달 대구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에 따르면 현재 신천지는 LA와 오렌지카운티에만 최소 1천여 명 이상의 신도들이 활동 중이며, 한인 교회들에도 깊숙이 파고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뉴욕에 600여 명, 아틀란타 200여 명, 시카고 80여 명이 있으며 미국 내

주요 도시와 주요 교회에는 신천지가 모두 잠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선희 목사는 "신천지는 '육체가 영생한다'는 허황된 교리와,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어서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게 만든다"며 "신천지에 미혹되면 가정이 파괴된다. 자녀들이 가출하고 직장인이 직장을 그만두는 등 사회에 큰 해악을 주는 집단임을 알려야 한다"고 경계했다.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에 창설된 신흥 종교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주장하고 성경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면서 자신을 직통계시자이자 보혜사라고 말한다.

신천지 이단 교리는 정통교회 성경관과 구원관을 파괴하여 이만희 씨를 재림주로 믿게 한다. 또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도 주장하며 이



지난 2018년에 열린 신천지 요한지파 미주본부 LA 수료식 ©신천지 동영상 캡처

만희 총회장을 구원자로 믿고 신도 14만 4000명이 모이면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정통교회와는 달리 기존 교회 성도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으며, 정통교회에 위장교인을 잠입시켜 성도들

을 미혹하고 빼내어 간다. 교회 안에 침투한 신천지 추수꾼들은 자신의 신상을 숨기며 봉사하다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기존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비방하고 소문을 형성해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은

헤로 받는 구원을 교주인 이만희 씨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종말론에서도 교주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며 이 시대는 교주인 자신이 나왔으니 종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美 펜스 부통령과 TF팀, "코로나19 확산 막아주시길" 기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TF팀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백악관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TF팀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는 사진을 공유했다.

그레함 목사는 "지난주 사무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TF팀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감동적이고 강력한 사진"이라면서 "펜스 부통령과 봉사자들 모두에게 감사한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지혜, 방향, 도우심을 주시도록 기도로 동참하자"고 권면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노력하고 있어

현재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팀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엘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

레기·전염병연구소(NIAID) 앤서니 파우치 소장 같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새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대처가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미국 정부는, 잇달아 사망자가 나오고 지역 감염 우려까지 심해지자 한층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TF팀은 진단 검사와 마스크 보급 확대, 백신 개발 상황 등을 설

명하며,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인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한 미국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겁먹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고위험국 여행자는 현지 탑승 전 검사에 외에 미국에 도착한 후에도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VK 마스크 시판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 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연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연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연염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2중으로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특수 천연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셔미네랄 천연염 소금연구소 제공.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판 매 처

Space Eum Cafe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마이크 백화점 LA 93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젤리아약국 3250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마이크 백화점 BP 545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벨리 그린하우스 17643 Sherman Way, Van Nuys, CA 91406	LIFE MED 333 S. Western Ave. Suite A, Los Angeles, CA 90020
그레이스 약국 20627 Golden Springs Dr., Diamond Bar, CA 91789	LIFE MED 그랜드메디칼센터 500 S. Virgil Ave. Suite 106, Los Angeles, CA 90020

“삼일절 정신 이어받아 대한민국 지켜내자”



3.1절 101주년 감사예배 및 구국기도회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LA 한인들

3.1절 101주년 감사예배 및 구국기도회 개최

“101년 전 자유와 국권회복을 위해 저항했던 순국선열들의 용기를 본받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위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난 29일, LA 지역 교민들이 모인 가운데 3.1절 101주년 감사예배 및 구국기도회가 테이라이 엘에이 양로원에서 진행됐다.

세계기도모임 서부지부(대표 김영구 목사), 대한민국역사지킴이운동본부(대표 김순희 회장), Great Korea(대표 마유진 회장), 충효예실천본부 LA 지회(대표 천성남 회장) 주관으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주의로 치닫고 코로나

19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고국의 여러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기도의 손을 모았다.

구국기도회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한 코로나 확산 방지 >경제 번영과 국민의 단결 >미국의 청교도 정신 회복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회 인도자들은 “피로 따위로 이뤄진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우리는 단결하고 뭉쳐 대한민국을 지켰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일궈냈다”며 “조국을 이어갈 우리 자손들을 위해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로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줘

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자유와 평화, 안전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전 국민이 삼일절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속에 한국을 이루도록 위대한 재도약의 발판을 삼자”고 덧붙였다.

강태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에서 “민족을 살리는 모르드개”(에스더 3:5-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한기형 목사는 “3.1 운동을 일으킨 우리 선조들은 부당한 억압과 탄압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모르드개였다”며 “나라가 위태할수록 신앙인들이 나서 가난과 질병, 모든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1면 “신천지 미국 내 2천여 명...가정과 사회 무너뜨려” 이어]

코로나19 방지 위해 해외 신천지 신도 명단 모두 공개해야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회장 한선희 목사

않고 정통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확보한다. 생활 속 어디든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교제를 확보한 후에는 비유필이, 계시록 세미나, 열린 성경세미나, 찬양집회 등 위장 세미나로 이끈다.

한선희 목사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했다”며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천지 이단대책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총연합회도 “학교, 직장, 가정을 포기하게 하여 결국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동이 되었다”라고 규탄하면서 “이제라도 사회적 피해를 줄이려면, 교주 이만희는 신천지 내부자들의 모든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고, 스스로 해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가 본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처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해외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천지 신도 명단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천지는 무료성경신학원, 시온기독교신학원, 평신도 신학원, 하늘문화연구원, 복음방, 기독교 교역자선교회, 리빙피플, 기독교 교육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포섭하는데, 초등, 중등, 고등의 3단계 코스로 각 2개월씩 6개월의 과정을 거쳐 신천지 교리를 교육시킨다.

신천지는 전도 서비스, 지하철, 마켓, 정통 교회 등 장소를 가리지



GBC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된 남가주 목회자 건강정보 세미나

미주 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서울메디칼그룹(회장 차민영)과 함께 지난 2일, 애너하임에 위치한 GBC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남가주 목회자 건강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

관리 지침 등 유익한 정보들이 제공됐다.

하태준 내과 전문의(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장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강조했다. 특별히 장시간 걷거나 산행 같은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1시간 가량의 부담 없

목회자 건강 유지,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필수

미주복음방송, 서울메디칼그룹과 남가주 목회자 건강정보 세미나 개최

는 운동을 권했다. 운동 시간도 1시간 운동 시, 40분 정도는 맥박이 1.5배 가량 빨라지는 유산소 운동, 10분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근력 운동, 10분은 유연성을 높이는 체조를 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당근과 콜레스테롤을 막기 위해 기름진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채소와 과일도 마려낸 식단과 소식을 권유했다.

“유산소 운동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량이 많은 곳이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인데, 근육이 없으면 관절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10분가량은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유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체조가 필요합니다.”

하태준 장로는 또 조기 진단으로 완치가 가능한 대장암과 유방암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 의학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날 메디케어에 대한 설명과 의료보험 이용 시 절약 방법에 대해 설명한 애니 심 에이전트에 따르면 메디컬은 부부가 월 소득 1,711달러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 목

회자가 은퇴 시 월 소득이 조금 많을 경우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양로원 이용 등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셰어오브코스트(Share of Cost) 플랜이나 의료비 상담을 통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에이전트는 병원에서 수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의 의료보험 네트워크에 포함된 병원 또는 의료진인지 확인해야 하며, 911을 부를 경우 소망차가 따라오는 경우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엠블란스만 오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건강 보험료 부담은 확실하게 덜어드리고 혜택은 골고루 받는 아주 괜찮은 헬스케어 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 벌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인지원센터 Tel:(714)738-1234 Fax:(714)738-1238
251 E. Imperial Hwy #410 Fullerton, CA 92835

티나 정(tchong.prime@gmail.com)
스티븐 정(schong.prime@gmail.com)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1ST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Now Enrolling

ACSI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천 스쿨, 리나 김 교장과 제2의 도약 나선다

미국과 전 세계 이끌 크리스천 리더 양성 목표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천 스쿨 리나 김 교장. 뒤에는 학생들이 골프와 농구 등 스포츠 대회에서 수상한 트로피가 가득하다.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천스쿨에서는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을 비롯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등 다양한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

40년 전통의 명문 크리스천 사립 학교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천 스쿨이 리나 김 교장과 함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3살 때 캘리포니아로 이민 와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리나 김 교장은 숙명여대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서울 교육청,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했다.

10년 전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탈북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졸업한 김 교장은 다양한 교육 지도 경험과 성경적 교육을 바탕으로 학교를 크리스천 리더 양성의 요람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천 스쿨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운영하는 종합 교육기관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막 12장 30절)를 비전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서 사회 각 분야를 이끌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천 스쿨은 학급당 평균 인원 10명, 전체 학생 수 100여 명에 교사가 20명일 정도로 소수 정예로 학생 개개인에 맞는 학업과 영성, 감정과 지성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6학년 때부

터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시작해 목표대학을 설정하고 대학 입학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에세이와 SAT 준비를 돕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 관리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받고, 차별화된 기독교 환경에서 높은 대학 입학률을 자랑하며 학과목뿐 아니라 골프와 농구 등 스포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개 UC 계열 대학을 비롯해 미주 지역 명문대로 진학하고 있으며 최근 졸업생 가운데 스탠포드와 존합킨스 대학에 입학하는 쾌거를 거

두기도 했다.

리나 김 교장은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 사회 전반에서 활약할 크리스천 리더들을 교육하고 있다”며 “모든 교직원과 교사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크리스천으로 차세대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을 위한 선교회에서 선교사의 사명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학생들은 6 에이커의 교정에 채플실, 체육관, 컴퓨터 랩실, 도서관, 야외 스포츠 코트와 운동장 등이 구비된 학교에서 마음껏 학업과 야외 활동과 클럽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 학생들

은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애너하임, 브래이 지역뿐만 아니라 뉴포트비치와 다우니 등지에서도 찾고 있다.

1년 등록금은 초등학교 8천 불, 중학교 9천 불, 고등학교 1만달러이며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해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애프터스쿨 시간에는 코딩, STEM, 검도, 농구, 배구, 축구, E-Sport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천 스쿨 입학문의는 714-318-2085 정은서간사에게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LA 11개 한인단체 “코로나19 대처에 힘 모으자”

호남향우회, 본국에 VK 마스크 보내기 운동

11개 LA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인들의 협력과 슬기로운 대처를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진 승무원이 다녀갔다’는 가짜 뉴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인타운 식당 ‘꿀돼지’에서 이날 모임을 가진 LA 한인단체연합은 “확인되지 않은 거짓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LA 총영사관이나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책임 있는 자료를 신뢰하는 이성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A 한인단체연합은 성명에서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희생에도 전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소모적인 정쟁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가짜 뉴스를 배격하



남기주호남향우회 양학봉(오른쪽)회장이 LA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에게 한국에 보내는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고 지역과 이념을 초월해 일체감 결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위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타인종의 눈에 띄는 크고 작은 모임을 자제하면서 타 커뮤니티와 유대관계를 유

지하도록 권고했다. LA 한인단체연합은 특히 신천지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하루속히 신천지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국가에 입힌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는 “고국의 어려움에 함께 연대해준 LA 한인단체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있게 일어났던 한국인의 저력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 다시 한번 극복하

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호남향우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VK마스크 2천 개를 구입해 한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시에 마스크 보내기 모금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남가주 한인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성금 수취인: Honam Friendship, Bank of Hope, 계좌번호 0014314903)

이날 참석한 한인 단체는 해외민주통일연대(김용현) 남가주호남향우회(양학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LA협의회(에드워드 구) LA상공회의소(박성수) LA민주연합(김문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박상준), 5.18기념재단 LA(잔 김), 남가주종교평화협의회(양윤성), 민족문제연구소(정찬열), 한미인권연구소(오은영), 한미평화협의회(차종환)등 11개 단체다. 김동욱 기자

“건강 보험료 부담은 확실하게 덜어드리고 혜택은 골고루 받는 아주 괜찮은 헬스케어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 벌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Complete (컴플릿)	Super(슈퍼)	Essential(에센셜)
1인	\$220.00	\$165.00	\$50.00
2인	\$440.00	\$330.00	\$100.00
3인	\$660.00	\$495.00	\$150.00
본인부담금	\$500/year	\$500/year	\$7,500/year
지원금	\$2 Million	\$1 Million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입원, 수술 건강검진(\$1,000)	의사비, 검사비, 치료 응급실, 입원 건강검진(\$500.00)	응급실, 수술, 입원

Altura 는 1995년에 설립된 비영리 선교단체로서 그동안 수만의 회원들의 의료비 지원을 해온 건설한 단체입니다. 이번에 한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국 회원들을 위해 더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한달에 \$165로 최고 1백만불까지 지원, 의사방문, 검진, 검사, 입원, 수술까지 해결!

- 의료비 신청 본인이 하지 않음
- 각 플랜: 응급실 사용 가능
- 한국 병원에서도 혜택
- 비 흡연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64세까지)
- 장례비 보조
- 그룹 플랜도 가능

·한인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인지원센터
 Tel : (714)738-1234 Fax : (714)738-1238
 251 E, Imperial Hwy #410 Fullerton, CA 92835
 email : info_primeh4@gmail.com

문 의: 티나 정 (tchong.prime@gmail.com)
그룹문의: 스티븐 정 (schong.prime@gmail.com)
 *Prime.ahs.family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 및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교부흥을 회복하라 #147

“2020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대회 ‘비전 나잇’ 을 다녀와서”

필자는 지난 2월 27-28일에 시애틀 형제교회(권준 목사)에서 개최한 두란노 아버지학교 ‘비전 나잇’을 다녀왔다. 올해는 특별히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미주 진출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여 더욱 기쁨이 큰 대회였다.

북미주 20여 지역에서 아버지학교를 담당하는 지부 리더십들이 약 200여 명 참가하였는데 올해는 중미, 남미의 멕시코와 과테말라 그리고 콜롬비아 등의 현지 아버지학교 리더십들까지 함께 한 다민족 대회가 된 것이 큰 의미라 할 수 있겠다. 물론 두란노 아버지학교 한국 본부(김승목 장로)를 중심으로 이미 아버지학교는 세계 3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아버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리는 가정 회복,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 회복운동이 아버지학교의 목적이다.

각 나라의 아버지들이 본연의 고귀한 아버지성을 회복하여 자식들에게까지 아름다운 대물림의 꿈이 많은 나라 아버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음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한 가지 아쉬움은 한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여파로 인해 한국 본부 리더십들이 대거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그분들을 보지 못한 것이다.

각 나라 각 지역의 아버지학교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들이 모여 같이 예배하고 서로 축복하며, 자신들의 아버지학교 운영 사례 등을 보고할 때는 큰 감동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어느 아버지학교에선 오래된 가정 불화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아버지가 한 동료의 권유로 아버지학교를 온 후에 아버지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아내에게 죄를 고백하며 마침내 부부 화합이 되어 가정회복이 이루어진 사례, 아들과의 갈등으로 서로 주먹다짐까지 하던 사이가 아버지학교에서 하는 숙제-자녀에게 축복기도 해주기, 편지 쓰기 등-를 진행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며 마지막에는 부자가 서로 부둥켜안고 한없이 영영 울며 회복된 이야기, 콜롬비아 한 스텝은 한 형제를 동원하기 위해 뱃길로 16시간을 가야 하는 지역에 홀로 가서 그 형제를 데리고 다시 16시간 동행하여 아버지학교를 수료시킨 이야기 등 수없이 많은 각 지부의 아버지학교 보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교회는 실로 감동과 감사의 시간이었다.

또한 이 모임에서의 큰 의미는 북중남미 전역의 사역자들이 같이 어우러져 교제를 하면서 이루어 내는 연합의 기쁨이었다. 식사 교제부터, 친교시간, 한 숙소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교제 등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가지며 서로 아버지라는 공감대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멋진 네트워크를 펼쳤다.

아버지학교의 프로그램은 네 번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아버지의 영향력이란 주제로 강의와 나눔과 실천을 통한 만남을 갖고, 둘째는 아버지의 영성, 셋째 만남에서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나눈다. 네 번째는 아버지의 사명으로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갖는 막중한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만남을 통해 나누고 가정에 돌아가 숙제를 실천하는 중에 자신의 잘못되었던 부정적 아버지상이 깨어지고 새롭게 덧입혀지는 참 아버지상을 회복하여 가정에 행복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필자가 느끼는 것은 ‘아버지학교’는 선교사역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상의 답 모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길잡이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회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연장선상으로 아버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민족에게 아버지학교가 전해지고 중남미의 형제들이 곧 이웃 나라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학교를 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본다.

필자가 지난 12년간 아버지학교를 섬길 수 있었던 원동력도 아버지학교를 통한 가정과 교회 회복 그리고 다민족으로 확산되어 가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전염병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인류가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하면서 전염병은 인류와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고 도시와 문명을 이루면서 전염병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병리학에서는 인류 역사는 전염병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꾼 전염병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학도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 교양서입니다. 이 책은 전염병이 인류의 역사에 미친 영향과 그 전염병 극복을 위해 바이러스와 백신을 끊임없이 연구해 온 의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전염병이 등장하고 그 전염병 때문에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역사학자 윌리엄 맥닐 박사는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저서에서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왔다”고 주장합니다. 맥닐 박사에 따르면 전염병의 영향은 막대합니다. 전염병은 좁은 지역에서 힘의 역학, 인구 구조와 노동 조건, 문화 환경을 바꾸어 왔고, 세계적 차원에서 문명의 형성과 전파 그리고 인간의 대규모 이주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인류는 역사 초창기부터 전염병과의 전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 초창기에는 전쟁 등으로 쌓인 시체에 의해서 생성된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했습니다. 또, 수렵을 하면서 동물들과 접촉에서 전해진 바이러스들이 인류의 면역력을 무력화시켜 인류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기후의 변화나 삶의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해 인류를 위협했습니다.

신종 전염병의 국제화 첫 사례는 로마제국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황제 시절 전염병입니다. 중동 지역에 파병됐던 로마 군인들이 이 병에 걸려 회군했습니다. 당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 불리는 이 병으로

그 당시 500만 명이 이상이 숨졌습니다. 안토니우스 황제도 이병으로 죽습니다. 사료를 통해서 당시 환자들의 증상을 살핀 의학자들은 이 병이 천연두나 홍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염병이 전쟁과 만나거나 전염병이 권력 갈등과 만날 때 전염병은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전염병에 의해 전쟁이 좌우되었던 역사적 첫 사례는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부터입니다. 이 시기에 아테네에서 역병이 돌았고 이 역병으로 당시 아테네 군인과 민간인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병으로 약해진 아테네는 결국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패합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기록에 의한 당시 환자들의 증상을 고려하면 당시 역병은 장티푸스였다는 것이 유력합니다.

아이티는 황열병의 전염 때문에 독립을 했습니다. 프랑스령이었던 아이티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프랑스는 군대를 보내 반란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황열병으로 하루에 사망자가 수십 명씩 발생해 순식간에 3천 명이 사망합니다.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은 황열병에 면역력이 있었지만 면역력이 없었던 프랑스군은 막대한 손실을 봅니다. 결국 프랑스는 아이티에서 철수하고 아이티는 독립합니다. 기록에는 과전되었던 3만 3천 명의 프랑스 병력 중 살아서 돌아

간 사람은 3천 명뿐이었다고 전합니다.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것은 발진티푸스 전염병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벌에 실패한 이유가 러시아의 추운 날씨 탓이라고 기록하는 역사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패전의 주원인은 전염병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나폴레옹 군대는 이미 발진티푸스와 동장군으로 더 이상 전투가 어려워 만큼 큰 내상을 입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당시 첨단 무기로 무장했던 60만 대군의 나폴레옹 군대는 추위와 추위로 씻지 못해서 생긴 이가 퍼뜨린 발진티푸스의 세력 앞에 맥을 못 추었습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종종 쓰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노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당황한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통회했습니다. 다윗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종종 주님은 전염병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급변 코로나 19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19로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21세기 문명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길 영향이 궁금해집니다. 아마 새로운 백신의 개발과 신종 바이러스 대처법이 개발될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미칠 영향도 적잖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전해줄 봄소식과 함께 코로나 19의 정리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19가 정리될 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시민권 취득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추방 재판
• 학생비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본 광고는 기독교일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는 목회자 돼야!’

[인터뷰] 서울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본지 주최로 오는 10일(월) 남가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예정이었던 장재효 목사님께서 본국에서 시무하시는 서울 성은교회의 긴급한 귀국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세미나 일정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남가주 지역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자 주-



장재효 목사는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살리는 성령운동(Spiritual Movement)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동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는 팔순이 넘어서도 쉽 없는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전 세계를 누리고 있다. 장 목사는 교회의 본질 회복과 목회자의 사명은 오직 ‘성령 충만’에서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재효 목사(성은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제79, 83, 84회 총회장을 지냈으며, 국제신학대학원 초대 총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총재, 성경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등 수많은 기독교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맡은 바 있다. 또 서울 성은교회를 개척해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진리정통·성령충만·선교확장을 목표로 훈련시켜 부흥하는 교회로 명성을 얻고 있다.

또 지구를 17바퀴 이상 돌면서 미주 교계 및 전 세계에서 목회자 세미나 및 교회 부흥회를 이끌며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하는 일문일답.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역사 하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관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그 계보 가운데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바, 예수님을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동정 탄생하게 하셨다.

죄 없이 사시던 예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연약의 피를 흘리시고 <이사야 53:1-6>처럼 희생양으로 죽임 당하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 주

셨다.

그러나 이 사실을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아볼 수 없기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하였고, 심판과 형벌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죄인들에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조명, 체험, 감동, 감화’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처럼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인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 지금은 오순절 이후 성령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알곡들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결실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시대, 즉 성령사역 시대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 시대에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자로 세워 쓰시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지옥길에서 천국 길로 돌아서게 하시는데, 이것을 ‘리펜트 무브먼트(repent movement)’(회개 운동)라 한다.

오순절 이후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했는데, 칠칠절(오순절)을 지키려 세

계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 나라말로 들려서, 설교 한 번에 3천 명이 회개하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의 초석이 된 것도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로 이루어지는 섭리였다.”

-이 시대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 말씀 해주신다면.

“목회자는 베드로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대언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수반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디고 완악한 심령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

요즘 일부 목사님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만든 설교문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해서 양떼들에게 선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 건축 계획을 세우고 헌금 설교를 계속하거나, 교세를 늘리기 위해 전도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해서 양떼를 속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 ‘성령 충만’은 목회자와 설교 강단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내가 운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때도 있다. 한국 교회 원로로서 한국 교회가 성령을 배척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신비주의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영적 운동(Spirit Movement)’을 일으키고 싶다. 방송이든 신문이든 기회 되는 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다.

현대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도 목사가 되기까지 철저한 회개가 없이 죄인 그대로이고 마음에 중심으로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된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교인들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직업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의 수단이 다양해지면 샅꾼 내지 사기꾼으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바른 목회 현장에서도 종종 교회 내 분열과 대립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회개도 중생도 신앙고백도 없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마 23:15)고 하셨다. 이 말씀을 잘 분석해보면, 교회 신도들의 문제점은 원칙적으로 교회 지도자에게 찾을 수 있다. 교회 지도자가 외식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가능성이 없기에 양 떼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와 똑같은 최악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바른 목회를 하는데도 목회자들에게 대적하고 행방하며 모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목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몇 번 권면해보다가 듣지 않으면 원수 시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기도 한다는데, 그러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택해서 내 목장에 들여보내시고 내 양 떼로 맡기셨다면 속속이는 그 사람은 본심을 봐야 한다.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단이 그를 회개하지 못하게 막고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게 붙드는 것이다.

참 목자라면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갑질의 기도로 성령을 더욱 충만히 받아야 한다. 목사가 애타는 심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안고 눈물로 기도하면 목사와 함께하시는 성령께서 강력적으로 역사하시게 된다. 그러면 완악하고 강박했던 그 사람에게서 사단이 물러가고 마침내 그도 인간 본심으로 회개하며 목사에게 용서를 받고 목회에 적극 협력 봉사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

-미주 한인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목회자들이 먼저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의 계획과 생각, 욕심이 앞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경 밖에서 다른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교회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미주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할길 바란다.”

김동욱 기자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시편 146:1-10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은 이스라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의 찬송 시로 그의 신앙 간증이면서 고백입니다.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유목민인 아버지에게서 여덟 명의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자라났지만 믿음만은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감동을 드린 참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사무엘상 13:14에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쓸모를 인정받음으로부터 목동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생각할수록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할렐루야를 연발할 수밖에 없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그의 인생은 찬송으로 엮여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3절의 방백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 또한 왕으로서 정치하는 사람이면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중에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대를 걸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토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모함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5절은 다윗이 자기 생애를 통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아름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하는 이유는 6-9절 “여호와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중략)...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느니라”는 말씀과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으로 확실히 믿어질 때 영원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기대는 내가 믿음을 잘 가꾸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처세를 했을 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온갖 좋은 조건으로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적 주권자로서 역사를 임의로 주관하시며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더라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악으로 잘못 길들여진 옛 생활을 그대로 되풀이한다면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46편은 다윗의 오늘이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온전히 믿음 하나를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결과였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찬양시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연발하는 생애로 축복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

습니다. 이것은 생김새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지식과 애정, 의지의 인격체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흠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체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어 버림받은 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이후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다가 찾지 못하면 다른 대체물을 찾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본래의 영적 심리 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 심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종교심리 때문에 여러 가지 미신, 우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1-4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중략)...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하는 이 말씀은 세계 모든 나라와 만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관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절대주권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의 역사를 엮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말하길 “너는 담대하라”라고 하며 위로가 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사 41:5-6). 그리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메질꾼을 장려하며 우상을 만들며 하는 말이 “땀이 잘 된다”하면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미신, 우상을 좇아 살아가고 있으며 또 하나 재물을 좇아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17-19에서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중략)...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재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거나,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부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활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된다면 장래에 자신을 위한 좋은 자리를 하늘에 마련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보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선한 사업에 쓸 줄 아는 지혜는 내게서 흠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내 몫으로 저축하는 것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집념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소망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중략)...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3:15-18)”한 구약의 이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담력과 정절의 본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

를 다른 축으로 바꾸어 돌리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역사의 축이 되어 돌아갔으나 이제는 바벨론을 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수산궁에서 서러움과 수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정해진 시각에 절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의 정절을 더럽힐 수 없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끌려온 이들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왕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 왕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낮빛이 변하여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하고는 그들을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불꽃 가운데서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게 보호하시고 견져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4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는 모세가 힘주어 강조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사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25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기와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용도 사명에 따라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정절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중략)...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라(단3:28-29)”고 우상이 난무하던

바벨론을 향해 명하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어 소망하는 신앙인은 불꽃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그 구원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재료로 확증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편 147편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라한 것은 하나님은 영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 곁에 있는 한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육신의 기대감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영적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생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인격과 의리와 예절이라는 믿음의 담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이 당하는 어려움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영육간에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24-26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중략)...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두 길을 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12-20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인의 가장 올바른 생활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알고 머리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되 우리 육신의 형편이 어찌되던 간에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이라야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토록 가장 안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영생을 하늘조건으로 보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게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PRESIDENTS' DAY SPECIAL SALE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ONATA SE

Lease **\$188** +Tax **0 Down** **\$26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3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담임목사 청빙

달라스 베다니 장로 교회는 (1986년 설립) 복음연합 장로 교단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소속 교회로 복음전파와 다음세대의 믿음 전승을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번 담임목사님의 은퇴(25년 시무)로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수고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실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청빙 자격 (자격 조건)

1. 장로교 및 개혁신학교 M. Div 졸업자.
2. ECO 교단 소속 혹은 가입에 문제 없는 분.
3. 이중 언어 소통이 가능한 분. (한국어, 영어)
4.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분
5.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

제출 서류 (구비 서류)

1. 교회 소정 양식에 따른 이력서, 목회 계획서 (bethanydallas.org/담임목사청빙공고)
2. 학위증 사본 (대학교, 신학 대학원 M. Div. 최종 학력)
3. 목사 안수증 사본
4. 최근 설교 2편 (mp3 or youtube link)
5. 추천서 2부 이상 (추천인이 청빙위원회에 직접 email 혹은 우편 발송)
6. 자기 소개서, 사모님 자기 소개서

제출 기간

2020년 4월 30일 까지이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후 1차 대상자에만 연락드립니다.

제출처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bethanypnc2020@gmail.com)

*문의 사항은 e-mail로만 문의해 주세요.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ECO

4020 Marchant Blvd, Carrollton TX 75010 Tel.972-395-9200
bethanydallas.org bethanypnc2020@gmail.com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방송(복음 채널) 방송선교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슷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T:(310)749-2522

기쁜우리교회 글렌데일 소녀상 앞에서 3.1절 기념식 가져

“평화와 자유, 독립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



글렌데일 소녀상 앞에서 3.1절 기념식을 가진 기쁜우리교회 성도들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지난 1일, 3.1절 101주년을 맞아 예배 후 교회 인근에 위치한 글렌데일 소녀상 앞에서 3.1절 기념식을 가졌다.

기쁜우리교회가 교회 창립 이후 매년 개최하는 3.1절 기념식은 독립선언서의 의미를 돌아보며 조국과 민족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다.

김경진 목사의 개식사로 시작된 기념식은 서정은 권사의 선창으로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주정배 권사가 독립선언서 낭독을 했다.

기념사를 전한 김복동 장로는 “송고한 3.1절 이념은 자유와 평등, 박애를 향한 민족정신의 발로였다”며 “겨레의 독립 구원이 응집된 조국 사랑의 출발점으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의식이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3.1절 기념주일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시 9:11-20)”이

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경진 목사는 “평화와 자유, 독립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음을 통해 창조적 역사,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한민족이 되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평화의 소녀상(The Peace Monument) 앞에서 울려 퍼진 삼일절 노래와 민홍식 장로가 선창한 독립만세 삼창은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을 더욱 고취시켰다.

이인규 기자

신천지 CNN과 인터뷰

“11월 이후 우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 없다”

신천지 측은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가 신천지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신천지 국제선교 책임자인 김신장 씨는 인물은 1일 방송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신도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투명하게 당국에 협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서 김 씨는 “당국이 코로나19와 신천지의 연관성을 과장하거나, 신천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닌지 의아하다”며 “우리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무실을 폐쇄하고 교인들 모두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로 돌려 행정 업무도 모두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일으킨 물의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또 “코로나19 사태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기반을



신천지 김시문 대변인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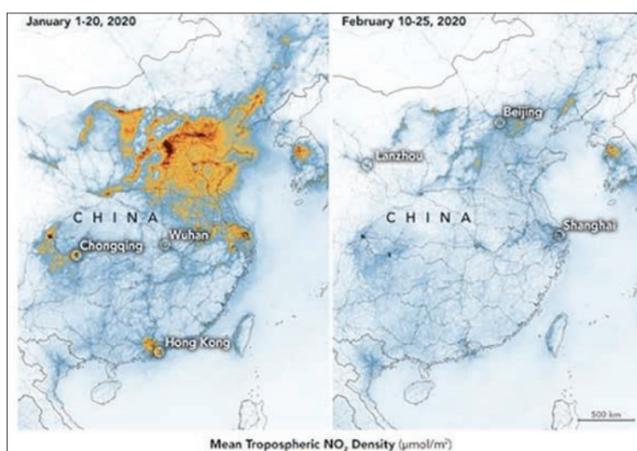
둔 신천지 신도가 357명 있었다”며 “교회는 모든 신도에 대한 공식적 여행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우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왜 7월부터 우한에 여행 다녀온 모든 한국 국민이나 중국인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42명 신도 기록만 공개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신천지 신도들이 정체를 숨기는 이유에 대해선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당국 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고 많은 교인이 그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예배 방식이 신도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이유라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대용 기자

코로나19 영향 ‘중국 대기’ 눈에 띄게 개선됐다



중국의 내륙과 동부 지역의 대기오염이 줄어든 것을 보여주는 위성사진. ©NASA 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기오염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BBC 방송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공개한 올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2월 10일부터

25일까지의 위성사진에서 이 같은 변화가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나 공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의 수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사는 중국 대기오염 수위가 급

격히 내려갔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 이산화질소의 감소가 처음에는 코로나19 진원지인 우한에서 나타났다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자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조업체와 같은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다. 나사 연구진은 대기오염의 감소가 대중교통, 기업활동의 제한, 수백만 명에 대한 격리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나사에서 공기질을 연구하는 페이 류 연구원은 “하나의 특정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대기오염 수준이 이처럼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많은 도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조치를 취한 점을 보면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했다.

강해진 기자

이만희 교주 기자회견, 코로나 음성 판정 받았다 주장



2일 전격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뉴스스

음성 판정 받은 것 재확인... 빠른 퇴장에 항의 일차 "조용합시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2일 오후 3시 가 평 신천지 연수원(일명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 후 질의 응답도 진행했다. 이만희 씨는 자신이 귀가 어두워 잘 들리지 않는다며 한 신도에게 기자들의 질문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

먼저 "본인은 정말 영생불사한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사회를 맡은 신천지 홍보부장이 "종교적인 질문은 안 받겠다, 코로나19에 대한 것만 해 달라"고 막아섰다.

이제야 기자회견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만희 씨는 "이해해 달라.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나 막는 데 급급하다 보니 정말 정신이 없었다"며 "지금 교회에 사람도 없다. 이렇게 다 막아놨는데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늦게나마 이렇게 대화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송경호 기자

정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와서 받았고, 음성이라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홍보부장은 서류를 들어보이며 2월 29일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구 청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거들었다.

이후 사회자가 "나머지는 실무자들이 답하겠다"며 이만희 씨를 퇴장시키려 하자, 기자들이 아직 질문이 남았다며 항의하면서 잠시 소란이 벌어졌다. 이에 이 씨는 "조용히 하자. 우린 다 성인이다. 이렇게 질서가 없으면 안 된다"며 명단 문제 등에 대해 조금 더 발언을 하려 했으나, 사회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하겠다. 총회장은 들어가시면 된다"고 제지했다. 이에 이 씨는 퇴장하고 신천지 내부부장, 해외선교부장, 행정서무 등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신천지에 의해 자녀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계속 이 씨를 비판하며 절규하기도 했다.

송경호 기자

이만희 씨 통역 여성

김남희 씨 탈퇴 후 급부상한 '실세'

윤재덕 종말론사무소장과 신현욱 구리이단상담소장 주장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에서 열린 이만희의 기자회견에서, 청력이 약해진 이 씨에게 귀속말로 기자들의 질문을 전달해 주고 있는 여성. ©송경호 기자

2일 이만희 씨의 기자회견장에서 청력이 약해진 이 씨에게 귀속말로 기자들의 질문을 재전달해 준 여성이, 신천지 탈퇴 후 이 씨의 실체를 폭로한 김남희 원장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현 실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언제부터 가평에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씨가 "나는 한 곳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안 된다"고 답하자, 이 여성은 이를 가로막고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고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단순한 통역(?) 이상의 역할을 했다.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패널로 참석한 윤재덕 종말론사무소장은 "그 여인은 김모 씨로 행정서무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 통상 그냥 서무라고 부르는데, 서무가 하는 역할은 교적부를 입력하거나 출석을 관리하거나 각종 공지 및 특별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김남희 씨 탈퇴 이후 이 씨 곁에서 세력으로 급부상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번에 얼굴을 드러냈는데, 서무가 또 1명 더 있다. 유력한 세력을 갖고 있다는 권모 씨"라며 "이 서무들의 권

력이 막강해서, 심지어 12지파장들도 이만희의 심기나 의중을 서무들을 통해 알아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신현욱 구리이단상담소장은 "요한 지파 서무를 보던 자매"라고 덧붙였다. 신 소장이 신천지에서 나온 2006년 말 이후에도 그 여성이 요한 지파 서무를 계속했다며, "김남희 원장이 탈퇴한 후 김 원장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가장 가까워서 측근에서 수행을 하니 아무래도 실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앵커가 "단순히 수발 들고 안 들리는 말 전하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사람)"이냐고 묻자, "아무래도 제일 가까이 있다 보니(그럴 것)"라고 답했다.

김 앵커가 "추측이지만 일종의 부인 역할인가"라고 묻자, 신 소장은 "내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인다"고, "12지파장보다도 영향력이 더 큰(사람인가)"라고 묻자 "자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24일 가평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이만희의 모습이 발견됐을 때 '긴 머리 여성이 옆에 있었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그 여성이 바로 이 서무라고 신 소장은 답했다.

송경호 기자

교회혁신교회

<p>LA 지역</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상집회 오후 7:30(월,수,금)</p> <p>김성식 담임목사</p> <p>LA백송교회 백일화처럼 순결하고 스나우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p> <p>3251 W.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7:0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9:00 토요일집회</p> <p>씨니김 담임목사</p> <p>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p> <p>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셔널)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에) 오전 11:30 *한양사과 예배 15분 전 대학선교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일(수) 오후 7:30</p> <p>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를 복음화하며, 이단기정음치료를 하며, 선교영광을 증후하는 교회</p> <p>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lden 고대) T. (213) 386-2233</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p> <p>3407 W. 6t.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p>
<p>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p> <p>최수환 담임목사</p> <p>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p> <p>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p> <p>한현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4차선)</p>
<p>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찬양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차성구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p> <p>정병노 담임목사</p> <p>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p> <p>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가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건너 앞입구4차선)</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2:30</p> <p>노영호 담임목사</p> <p>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양기상 7:21)</p> <p>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ehan.com</p>	<p>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p> <p>정인호 담임목사</p> <p>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p> <p>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p>
<p>1부예배 오전 8: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p> <p>곽건섭 담임목사</p> <p>에은장로교회</p> <p>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p>	<p>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p> <p>박은종 담임목사</p> <p>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p> <p>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p> <p>김중호 담임목사</p> <p>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p>	<p>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델멘에(소에베일) 오전 11:0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 유아 아동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p> <p>김신 담임목사</p> <p>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p> <p>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힘쓰고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김은목 담임목사</p> <p>평화교회 성경과 진리로 깨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 교회</p> <p>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p>
<p>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묘모내기 만민부 지역 연합한인교회</p> <p>김경렬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신용한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새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이종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유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화)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금요일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7:30分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분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1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꿈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
EM(말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전 8: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절연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오명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영어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00 3부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814 Riverside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87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코로나 19 '확진자 아니면 말고' 식 보도, 교회에 피해

명성교회 해당 부목사와 접촉자들 재검사에서 '음성'



명성교회 앞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된 모습. ©독자 제공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명성교회 입구에 붙은 출입 제한 공고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명성교회 부목사, 그리고 그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던 명성교회 선교사 자녀, 성동구청 여직원 등이 모두 재검 결과 '음성' 판정을 받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음성 판정 자체는 정말 다행이지만 첫 검사에서 정확한 판정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 처음 확진부터 2차 재검에서 음성을 받기까지 당사자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했던 게 아니었다.

특히 해당 부목사는 신천지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아야 했다. 그 이유는 그가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했었기 때문인데, 이 병원은 최근 신천지 이만한 교주의 형이 입원해 치료받다가 사망한 뒤 장례식까지 치른 곳이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다수의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중 특히 신천지 교도가 많았다.

그러나 이만한 교주 형의 입원과 장례식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진행됐고, 해당 부목사와 교인들은 2월 14일에 그 병원에 갔으니, 그 시점이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 측은 "해당 교역자와 성도들은 상을 당한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명성교회는 신천지 및 청도대남병원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명성교회는 신천지를 비롯한 어떤 이단 세력 과도 연관된 일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 표명까지 해야 했다.

명성교회 전체 차원에서도 피해가 심했다. 가장 심각했던 부분은 명성교회가 신천지와 동급 취급을 받으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모함과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는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성도님들과 지역사회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는 하

송경호 기자

본국 '코로나19' 확진 5186명... 43일만에 5천 돌파

하룻새 974명 증가... 하루만에 5000명 넘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하루에만 1000명에 육박한 974명이 추가되어 5000명을 돌파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오후 4시 확진자 숫자가 이날 0시 대비 374명 증가한 518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확진 환자 4212명 대비 하루에만 974명의 환자가 더 불어난 것이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서 국내 확진환자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수는 지난 달 29일 3000명을 넘어선 후 이를 만인 지난 2일 4000명을 돌파했다. 이어 하루 만에 환자 수가 5000명을 넘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중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기간을 2주 늘리며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또 일반 시민 중 유증상자를 우선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독교일보 편집부

대형교회들, 코로나19 환자 수용시설 제공

여의도순복음교회·사랑의교회 광림교회, 지방 부속 시설

코로나19 환자들이 병실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택에서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 주요교회들이 코로나19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해 4일 교회 시설을 내어놓기로 했다.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는 경기 파주시 오산리 기도원 인근의 영산수련원 2개동을 제공하

기로 했다.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도 경기 안성시 사랑의교회 수양관과 충북 제천시 제천기도동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광림교회(담임 김정석 목사)도 경기 광주시 광림수도원을 경증 환자들을 위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교회들은 수용 인원과 절차, 방식 등 구체적인 실무 내용을 보건 당국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대웅 기자

총신대 이사장 사임 직후 불교 대학 총장 취임

“아무리 임시이사라지만... 모멸감 느껴”

최근까지 총신대학교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얼마 전 불교계 대학인 금강대학교 제8대 신임 총장으로 취임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5년 금강대 석좌교수로 임용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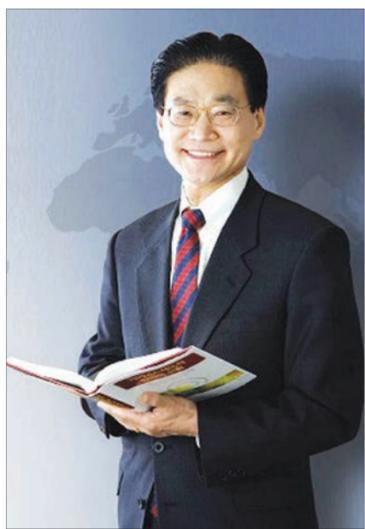
교육부가 총신대에 임시(관선)이사로 파송했던 정 교수는 지난해 7월 15일 이 학교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사장직 사임은 최근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신학대의 이사장을 역임했던 자가 사임 후 곧바로 불교계 대학 총장으로 간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정 교수는 금강대 홈페이지의 ‘총장인사말’에서 “대한 불교 천태종의 중창이념과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종립대학”이라고 이 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또 학교법인금강대학교 정관 제1조(목적)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천태불교사상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법인 이사 정원 15인 중 7인은 대한 불교천태종 재적승려여야 한다.

총신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무리 임시이사라 할지라도 정부는 최소한 학교 건학이념과 정체성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며 “특히 총신대는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견지해 온 기독교계 대표적 신학교 아닌가”라고 했다.

총신대 이사장을 지낸 이가 사임 후 곧



총신대 이사장이었다가 최근 금강대 제8대 총장으로 취임한 정용덕 교수 ©금강대 홈페이지

바로 불교계 대학 총장에 취임했다는 소식에 한 교계 관계자는 “기독교인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의 이번 불교계 대학 총장 취임을 두고,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 총신대 임시이사회가 이 학교 이사원 교수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도 기독교에 대한 그의 선입견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송경호 기자

JMS 정명석, 10년 복역 마치고 지난해 출소



JMS 측이 방송금지 가져분을 신청한 MBC '실화탐사대' 예고편. ©MBC 캡처

충남 천안의 코로나19 5번 확진자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라는 의혹이 일자, JMS와 정명석 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JMS 측은 얼마 전부터 모든 모임과 행사를 중단하고 있으며, 2월 23일부터 전국 온라인 가정예배를 시행 중이라고 전한 상황이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JMS의 정 교주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와 홍콩 등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교주는 탈퇴 신도들의 고소로 인해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2001년부터 7년간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2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소환된 바 있다.

지난 2009년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JMS의 사무국장, 수석부회장, 서울지역장, 설리신학교 학생회장 등을 지낸 탈퇴자 4명이 한국기독교교언교연합회에서 양심선언과 회개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 JMS 정명석을 재림주·메

시아로 믿어 왔으나 JMS 내에서 각종 성범죄와 테러 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명석의 실체를 깨닫고 탈퇴를 결심했다고 증언했다.

전 서울지역장을 지내고 JMS교에서 26년간 몸담았던 여성 조모 씨는 자신도 성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교주인 정명석은 자신과의 성적 결합만이 구원’이라는 주장을 폈고,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간음 사건이 있었음을 폭로했고, JMS 설리신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역임한 민모 씨는 2003년 전주에서 정명석 측의 사주를 받고, 반 JMS 활동을 하던 김모 씨를 다른 공범 4명과 함께 흉기 등을 이용해 테러했다고 고백했다. 민모 씨는 당시 양심선언을 하고 대기 중이던 경찰에 바로 연행됐다.

한편 정 교주는 10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JMS 측이 방송금지 가져분을 신청한 MBC '실화탐사대' 예고편에 따르면 정명석 교주는 “나 메시야다 그랬어”라고 말하는 부분도 등장한다.

김신의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단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단기)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진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피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출3:9~10)
15411 S. Figueroa Ave., Torrance,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수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신앙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일민예배 오후 1:30
이름없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께 갈지어라(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F.(810) 530-8400/cornerstonetv.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단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단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분단
KM/선교회 오후 2:00 분단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단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단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1부), 6:30(2부)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O. C., 엘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이명이 담임목사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민승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애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침평화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지 예배 매일 4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애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이 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으로 영생을 살리는 해방교회 ALL IN JESUS 4-계 2-계 3-계 4-계 5-계 6-계 7-계 8-계 9-계 10-계 11-계 12-계 13-계 14-계 15-계 16-계 17-계 18-계 19-계 20-계 21-계 22-계 23-계 24-계 25-계 26-계 27-계 28-계 29-계 30-계 31-계 32-계 33-계 34-계 35-계 36-계 37-계 38-계 39-계 40-계 41-계 42-계 43-계 44-계 45-계 46-계 47-계 48-계 49-계 50-계 51-계 52-계 53-계 54-계 55-계 56-계 57-계 58-계 59-계 60-계 61-계 62-계 63-계 64-계 65-계 66-계 67-계 68-계 69-계 70-계 71-계 72-계 73-계 74-계 75-계 76-계 77-계 78-계 79-계 80-계 81-계 82-계 83-계 84-계 85-계 86-계 87-계 88-계 89-계 90-계 91-계 92-계 93-계 94-계 95-계 96-계 97-계 98-계 99-계 100-계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으로 임하여 함께 살아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왕상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교회 주일 오후 1:30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최순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LA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일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름새를 배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레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로나 첫 사망자 발생 등 미국 확산에 이민교회들 화두 "두려움 극복"



뉴욕에일장로교회 김중훈 목사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 린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미국 워싱턴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미국 본토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교회들 또한 긴장하고 있다.

미국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 드렸던 1일 주일예배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마다 코로나19 예방법을 공지하는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가운데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설교 메시지에서 코로나 등의 주변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역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에일장로교회 김중훈 목사는 '주의 구원을 보았는가?'(누가복음 2:21-3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근심,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 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면서 '바이러스의 공포를 비롯해 사업 등의 여러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오직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구원을 확신하고 사는 자들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김중훈 목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할 때 성전에 나오라고 하신다'면서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기를 소원한다'고 전했다.

린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는 '두려워하는 날'(시편 56:1-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두려울 때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었다.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이것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다'면서 '아무리 신종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해도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해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바란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고 길'이라고 말했다.

또 김성국 목사는 '지금의 여러 환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아볼 기회를 삼기 바란다'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는다. 그 땅을 고쳐주실 줄 믿는다. 땅을 고쳐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면서 '두려운 날 의지할 곳은 블레셋이 아니었고, 힘센 나라도 아니었다. 의지할 곳은 하나님'이라고 밝혔다.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도 설교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운 마음 들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을 이기고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란다'면서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위해 준비시켜주실 줄 믿는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책임져주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김대원 기자

KAPC 동남부노회 신임회장에 김용환 목사, 부회장에 정성환 목사

2일, 제 79회 정기노회 화평장로교회에서 열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동남부노회 제 79회 정기노회

지난 2일(월) 오후 5시, 스와니 소재 화평장로교회에서 개최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 79회 정기노회에 목사 회원 및 사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노회장에 김용환 목사(화평장로교회), 부노회장에 정성환 목사(새생명한인교회), 장로 부노회장에 나병욱 장로(렘피스 한인연합장로교회), 서기에 이승로 목사(새벽장로교회)가 선출됐다.

회의에 앞서 정성환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 김승기 목사(렘피스제일장로교회)는 '엘리아가 부럽다(왕상 18:41-46)'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엘리아는 혹독한 탄압과 혼탁한 무질서 속에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선지자였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습이 참으로 부럽다. 우리 목회자들도 엘리아의 믿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달려나가자'고 권면했다. 권혁기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이어졌고 잠시 정회한 뒤, 회무처리를 통해 임원선거를 실시한 뒤 신규임원 교체식으로 마무리 됐다.

김승기 전 노회장으로부터 성경책과 사회봉을 전례 받은 김용환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남부 노회가 더욱 화목한 노회가 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임원들 및 회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특히 이날 김민 전도사(살롯연합교회), 김혜명 전도사(에베에셀교회)의 목사후보생 고시 시취 및 합격증 수여순서가 있어 은혜를 더했으며, 신임 노회원 인사 및 12건의 현의문서건이 처리됐다.

이틀타트=김앤더슨 기자

청교도 이민 400주년 | 기독교 영성 회복의 길 <제6편>



청교도들이 신앙에 끼친 영향 (2)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교도주의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정신구조이며 하나의 정신입니다.....참된 청교도주의는 궁극적으로 장로교회 안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존 나스에게서 발견됩니다.” 이들 청교도들은 영국 안에서는 장로교회, 회중교회, 분리주의교회와 감리교회 등으로 발전하였으며, 미국에 이르러 오늘날의 개신교회의 주된 전통을 형성하였다. 바로 이런 청교도주의를 신앙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청교도들이 신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합동신학대학원의 이승구 교수의 글 “청교도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청교도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다.

청교도들(Puritans)은 “간간한 사람들(Precisions)”로도 불렸다. 그들은 성경을 간간하게 따져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거룩한 신앙을 올바로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간간하다’는 조롱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 누구도 정당하게 잘못을 찾을 수 없는 교리와 생활을 지닌 형제들이다’(리랜드 라이든). 그들은 오늘날 ‘이천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밖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다’는 평가는 정당한 평가이다.

2) 청교도들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설교한 사람들이다.

청교도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경 본문의 바른 의미를

알고자 하였으며, 성경의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고자 노력하였고, 찾은 진리를 인간의 제도나 사상을 따라 구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른 설교를 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예전이나 의식보다는 설교를 중요시하여, 예전을 중시하던 미신적인 가톨릭의 전통을 배제하고, 말씀을 통한 생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 시간은 설교 시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3) 청교도들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경건을 추구한 사람들이다.

첫째로, 청교도들은 주일성수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청교도들은 주일을 ‘영혼을 위한 장날’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날’로 생각했다. 이것은 청교도들의 보물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18문에 나타난다. “문 : 왜 가족의 어른들과 다른 윗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답 : 가족의 어른들과 다른 윗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로 안식일을 지키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 자신의 일로 아랫사람들의 안식일을 방해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소요리문답(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60항목과 대요리문답 117항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은 묻습니다. “문 :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답 :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온 종일 거룩하게 할 것이며, 언제나 죄악 된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할만한 세상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며,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 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요리문답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목회자들을 제외하면, 나이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 들어본다고 하며 거부반응을 나타낼 것이다.....그러나 청교도들은 온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었던 자들이다.

둘째로, 청교도들은 예배를 중요시 하였다. 청교도들은 예배에서 형식은 되도록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주일에 예배로 교회에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쓰여진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었다. 즉, 청교도들은 예배를 중요시 하였으며, 예배를 중요시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살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청교도들은 통상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 가장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렸으며 기도와 성경읽기 그리고 찬양으

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

셋째로, 청교도들은 기도의 의무를 열심히 감당한 사람들이었다.

마틴 루터가 닦은 (만일 제사장 불루버드)를 따라서 청교도들은 직접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영국 국교회에는 <기도서>가 있어서 <기도서>에 쓰인 대로 기도해야 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이를 거부하고, 가톨릭의 성직자를 통한 기도도 거부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 하되, 경건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가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85문과 186문답은 기도에 관해 청교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준다. “185문 :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답 :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필요한 것들과 죄에 대한 깊은 의식과 통회하며 감사하는 열띤 마음을 가지고 이해, 믿음, 성실, 사랑과 인내로써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기도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으로 인식했던 것을 확연히 볼 수 있다.

넷째로, 청교도들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경건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남편은 가정의 목사이야 하는 가정의 전도사라고 말했다. 오늘날엔 고개를 가우뚱할 수도 있는 당시의 주장을 보면 이렇다. “남편의 의무는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고 주일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고 가정에서 그날 온종일 성별하도록 감독하고, 자녀에게 교리문답을 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설교를 들은 후에 가족 전체의 시험을 보아야 하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하면 이해시키고, 매일 가정 예배를 이상적으로 하루에 두 번 인도하고, 언제나 모든 문제에서 근실한 모범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이상 살펴본 청교도들의 모습에서, 어쩌면 생경한 느낌마저 들지는 않는가?.....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 멀리 떠난 것이 아닐까? 신학자 데이비드 웰스(David Wells)는 자신의 저서를 “No Place For Truth”(신학실종)이라고 이름하여 현대를 영적으로 진단했다. 이제 다시 광야로 나아가, 황량한 모래 바람 속에서 들리는 모세와 청교도들의 거친 기도소리를 다시 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

* 참고 문헌

1. 이승구, 청교도란?
2. A.A 하지(김종혁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3.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2)

박종승 목사
예심교회 동역목사
WIW Ministry 사역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기념 성경테마여행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미국 도착 400주년을 기념하여 기독교일보와 WIW Ministry.에서는 미국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톤의 역사관광지 그리고 청교도가 미국에 정착한 역사를 볼수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와 마을들을 돌아보며 청교도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안내합니다.

날짜 : 5월 12일 / 5월 13일 - 선착순모집

일정 : 플리머스 청교도 도착한 랜딩플레이스 청교도들의 마을 " Plymouth Plantation "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Cape Cod 청교도 첫 도착한 항구 400년전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 메이플라워 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프리덤 트래일 동부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479

+ 항공요금

노아의 방주를 타다 !!

날짜 : 3월 10일 / 4월 14일 / 5월 12일 / 9월 15일 / 10월 13일 / 11월 10일

일정 : 창조박물관 견학(천지창조, 예수님의 사역)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현대의 생활모습을 거부하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인 아미쉬 마을 클리프트 주립공원을 아름다운 경치 감상 시카고 시내 관광

\$519

+ 항공요금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날짜 : 9월 22일 / 10월 20일 / 11월 3일

일정 : 플리머스 청교도 도착한 랜딩플레이스 청교도들의 마을 " Plymouth Plantation "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Cape Cod 청교도 첫 도착한 항구 400년전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 메이플라워 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프리덤 트래일 동부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499

+ 항공요금

필라델피아를 가다! 말씀과 역사를 따라서

날짜 : 4월 21일 / 5월 19일 / 6월 9일 / 9월 8일 / 10월 6일 / 11월 10일

일정 : 레위기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성막 체험 기독교의 브로드웨이로 불리는 2000석 규모의 성경 뮤지컬 미국 최대의 아미쉬 마을 방문 펜실베이니아주 아름다운 경치 감상 믿음의 유산으로 세워진 프린스턴 방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필라델피아 역사지구

주최 : 기독교일보 주관 : WW Ministry, Bliss Travel (714)681-6356, (213)434-1170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개강일자: 3월 19일 입학상담 : 213-272-6031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월 일 개강

등록상담전화

수로 위를 신나게 달린 차

몇 년 전 신문에 어떤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글렌데일에 있는 수로를 달렸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수로는 길 옆에 만들어진 물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수로 위를 벤츠를 몰고 70마일의 속도로 물을 가르며 달린 것입니다. 공사장 인부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서야 차를 멈추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확한 원인은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수로를 고속도로 진입로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퐁크리트로 잘 닦여진 길이라고 해서 다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달리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물이 달리고 있으면 수로요, 차가 달리고 있으면 도로인 것입니다.

길이라고 다 동일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택해야 할 바른 길이 있



박성근 목사
남가주세누리교회

습니다. 그래야 엉뚱한 실수나 사고를 내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열심히 달렸는데 왜 나의 인생은 풀리지 않는가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70마일로 물살을 가르며 풀나게 달려도 잘못된 길을 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로 들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길이 훤히 보이고 신바람 나는 인생을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 안내자나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 자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요 14:6).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가지 않는 인생은 엉뚱한 길로 접어든 인생입니다.

둘째로, 좁은 길이 바른 길입니다. 쉽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험악하고 힘들지만 진리를 따라가야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길이 바른 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고후 5:7)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 능력의 창대함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앞 길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의 응답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나, 위대한 승리 뒤에는 반드시 뛰어난 리더십의 사람이 있습니다. 2002년 한국 축구의 월드컵 4강 진출의 뒤에는 거스 허딩크 감독이라는 결출한 리더십이 있었고, 애플을 디지털 미디어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만든 것도 탁월한 직관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스티브 잡스라는 CEO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미국을 대공황으로부터 구하고,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며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올려놓은 데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면서도 용기 있는,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직에 4번이나 당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포츠 팀이나 회사나 국가도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항상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부르심이 없이 일하는 것은 마치 기초 없는 집과 같아서 조금 강한 바람만 불어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일을 하다보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때가 있고, 인간적인 열심이 바닥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은 이 일을 얼마나 어려우나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게 지혜와 인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열정과 집념의 사람을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민 2세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로,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는 부모의 기도 제복이 끝난 사람과 같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위대한 역사는 그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동생 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처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참한 상황을 듣고 나서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문제를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 왕궁을 떠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확실한 비전을 주시며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 부르심이 확실해 지니까 느헤미야는 지체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때문에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에 대해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준비시켜 가실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내가 선택할 메뉴는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는 태도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신 것 맞나요?’ 의심하며 순종하지 못합니다.

부르심을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응답입니다. 2020년 한 해가 후회함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부르심을 순종하는 복된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이를 먹어 할 수 있는 일

얼마 전, 교인들과 말랑가 교회 헌당식에 다녀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보에 광고를 하고 선교팀을 모집하여 7분의 성도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케냐 선교사님께서 선교본부인 나이로비에서 말랑가까지 차량이동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말랑가에서 3시간 떨어진 엘도렛까지 비행기로 이동해야 하니, 항공권 예약을 위해 우리 선교팀의 인적사항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선교팀의 한 분 한 분의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안목사님께서 어른들 모시고 선교지 방문 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 그룹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보니, 저를 제외한 선교팀 평균 연령이 68세가 되시더군요.

이번에 팀을 모집할 때도, ‘단기 선교 팀’으로 명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선교지 방문팀’으로 모집을 하였지요. 그런데, 우리 방문팀이 다른 단기 선교팀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을 ‘위로’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먼저는, 선교사님에게 맛있는 식사대접을 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 두 분이 평소에 가시기 힘든 식당을 안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두 번의 식사 대접을 해 드렸는데, 한 곳은 한인분이 운영하는 일식당이고, 또 한 곳은 케냐에서 아주 유명한 호텔의 ‘데판야키’였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10여년 전에 방문하신 한국에 큰 교회 담임목사님께서 사주신 이후로 이 호텔 식당에 와본적이 없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많은 젊은 선교 팀이 오지만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매번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지, 대접을 받는 일이 흔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아드렸습니다. 모

든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출발하는 날, 권사님들께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나 애쓰셨어요.” 하며 안아주시자,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런 위로는 다른 젊은 선교팀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나이를 먹었기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나이를 먹었기에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선교지를 찾아가 벽돌을 쌓거나, 선교지 아이들을 위한 VBS를 해주거나, 저들과 함께 뛰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지요. 하지만,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어머니 같이 안아주고, 사랑의 마음을 담은 근사한 식사대접으로 위로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나의 나이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선교적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나이에 걸 맞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더 넓은 곳으로

확장기념 플로어 30% 세일

수술 않고 해결합니다! 척추통증·좌골신경통

2020년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하루 5분

허리 통증, 손발저림 통증, 모든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월-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료 체험

허리 오세요

“이 전역 딜러 모집” 자기방어용 신변보호장치 전기충격기!!!

“지난 20년간 한인타운 스테디셀러” 후지미 마사지체어 최초 플로어 세일

한국인 체형에 가장 맞는 마사지 체어 Massagechairtechnicians.com에서 2019년 미국 내 No.3

*Fujimi.us의 GT 700 massagechair LOLC Edition 플로어 전시품에 한함.

LOLC Inc. | Tel. 213-700-8382
For the Spirit & Body |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CBD Hemp Oil 제품으로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 수입승인 제품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햄프햄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햄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면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면 제거



2달분
1,800 환
\$25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CBD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를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햄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통해서 섭취가 어려운 요오드는 일일 권장 섭취량의 약 8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2 장에 좋다**
햄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 4 당뇨에 좋다**
햄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5 간에 좋다**
햄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테인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 6 항암에 좋다**
햄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햄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 7 식이섬유가 많다**
햄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 성분이 장내 중성지방을 수용성 지방으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 8 칼슘이 많다**
햄초에는 100g 당 칼슘 235mg, 칼륨 650mg, 철분 40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하라산정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햄초의 효능'에 항염증, 항균, 갑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코셔미네랄 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맛소금, 맛소금)
나트륨 Na : Cl	나트륨 (Na)
칼륨 K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 Cl	
마그네슘 Mg : Cl	

중금속
간수

515g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햄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햄초! 바하햄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30 +Tax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햄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이음헵프카페 전서판매장

중앙일보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Dietary Supplement
HEMP PLUS+

2 TIMES A DAY (15 PILLS)
TOTAL (900 PILLS)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올가늌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합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동급향상과 환자의 약물,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공산주의와 교회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공산주의 사상이 한국에 유입된 후에 시간이 가면서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이질(異質)적 사상임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에 교회와 사회에 팽대되어 있는 공산사상의 형편을 다음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다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 같다. 고등보통학교에서도 소년, 소녀들이 공산주의 서적을 정독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한국에서는 어떤 문화 기관보다도 교회가 이 공산주의의 침해에 더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이들 젊은 층은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하나님은 죽었다’고 신의 존재까지 부인한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치고 이 나라에서 생존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 한 가지 알아 둘 것은 어느 나라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표준 이상으로는 절대 발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반기독교적 단체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맨 먼저 형성된 것은 사회주의 청년단체로서 차금봉 등에 의해 1920년 4월에 창립된 ‘조선노동공제회’다. 이 단체는

처음에 기독교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신의 뜻에 따라 노동문제를 해결한다는 태도를 전명하였으나 곧 좌경운동으로 그 본색을 드러냈다. 급진파들은 ‘남조선노동총연맹’을 결성하였고 1923년 9월에는 다양한 노동조합을 통합하여 ‘조선노동총동맹’이 발족되었다. 한편 청년단체들도 통합되기 시작하여 1920년 11월 ‘조선청년연합회’가 발족되었고, 1924년 4월 장덕수가 지도하는 조선청년총동맹이 결성되었다. 그 후에도 여러 단체들이 형성되고 와해되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행동을 한 단체는 ‘한양청년연맹’이었다. 이 단체는 1925년 8월 서울 아현청년회관에서 서울 주변에 있는 사회주의 청년 단체 열개를 규합한 연합체로 출발하였다. 이 단체가 반 기독교운동을 구체화한 것은 제2회 ‘전조선주일학교대회’가 서울 기독교청년회관에서 모일 때였다. 이 주일학교대회는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주최로 경성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1925년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각 교과 주일학교와 협동하여 조선의 종교교육 발전을 위해 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런데 한양청년연맹이 동월 25~26 양일에 주일학교대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기독교 대강연회 개최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전에 일경에 발각되어 무산되고 말았지만 후에 12월 25일 성탄절을 ‘반기독교 데이(날)’로 정하는 등 반 기독교운동을 공공연히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그들의 활동이 미약하였으나 공산주의의 본산인 러시아가 있는 북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충돌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충돌의 결과는 오직 교회의 일방적인 피해가 있었을 뿐이었다.

기록에 남아 있는 공산당에 의한 첫 박해는 동야기독교교회(침례교회의 전신)의 선교사들이 당한 것이다. 1925년 이 교회에 의해 중국 길림성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윤학영, 김이주 등 네 사람이 같은 해 9월 공산당들에 의해 일본의 밀정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이국땅에서 동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것이 공산당들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최초의 사건이다. 이것은 실로 무서운 비극의 서막이었다. 이때로부터 1948년 여수·순천사건, 1950년 6. 25 사변으로 이어지는 수난들은 ‘만일 날날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요한 21 : 25)라는 성경 말씀이 어울릴 것이다.

첫 번째 희생에 이은 두 번째 희생도 동야기독교교회 김영진 목사와 김영국 장로 형제였다. 이들은 함경북도 중성 사람들로 간도 연길현에 있는 중성동에서 목회하고 있었다. 이곳은 함북 중성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하여 이룬 동리여서 중성동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1932년 10월 약 30여 명의 공산도당들이 밤에 이 동리를 습격하였다. 이들은 동민들과 교인들을 예배당에 몰아넣고 공산주의를 따르면 살려 주고 예수를 따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공산당들은 김 목사 형제에게 다그쳤다. 그 때 김 목사 형제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잔인하고 무도한 악형으로 이들을 탈피(脫皮:가죽을 벗김)하여 죽이는 참혹한 일”을 자

행하였다.

당시의 형편을 그곳에 있던 장로교회의 서창희 목사가 「기독신보」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보고하였다. “동만(東滿) 각지에 산재한 동포들이 매일같이 무참한 살상과 피해당함을 ... 애매히 남모르게 피 흘리고 동분서주하는 고생과 한숨의 눈물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알리오. 그런 중에도 본 교회(동만교회) 안에 있는 각 교회에서 교인의 살상피해가 너무도 극한고로, 참다 못하여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강이는 대로 기재하나이다.”

서 목사의 편지에 따르면, 연길현 와룡동 예배당이 공산당들의 방화로 소실되어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적암동교회의 영수(領袖) 노진성은 공비들에 의해 피살되었고, 교인들은 모두 피난을 갔으며, 로터거우 교회는 두 번씩이나 공비들의 습격을 받아 재정적 피해가 수천 원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 동만노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라며 편지를 끝맺었다.

감리교회의 목사 김영학은 1922년 목사로 안수 받음과 동시에 9월 연회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선교사로 임명받았다. 그가 시베리아 신한촌에서 선교하던 중, 그 지방의 공산당들에게 여러 가지로 시달림을 당하였다. 결국 그는 1930년 2월 소련 경찰에 체포되어 반동분자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10년 중노동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신한촌에서 천 리나 떨어진, 영하 50도가 넘는 시베리아 오지로 끌려가 중노동에 하던 중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같이 일하던 10명과 함께 빠져 목숨을 잃음으로 순교자의 명부에 그 이름을 올렸다. 감리교회에서는 사태가 위태해지자 그에게 귀

국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기독교자가 남아 있는 한 낡겠다.”고 하더니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다. 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장로교 목사로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한 사례는 한경희 목사가 처음이다. 1909년 평북 전도회는 그를 중국 유하현과 통화현에 전도인으로 파송하였다. 그 후 그는 1914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남만주에서 전도하여 여러 교회를 세웠고, 한때 평북 창성에서 목회를 하였다. 총회 파송으로 다시 북만주로 갈 때 친구들이 그곳은 공비들이 많아 위험하므로 가지 말라고 권했으나 “만주 선교는 나의 소원이야.”라며 권유를 뿌리치고 1933년 북만주 오소리강변으로 떠났다. 1935년 정월 한 목사는 김창근 영수 등과 북만 호림현 지방으로 교회 순방과 전도 여행을 떠났다. 교인 네 사람과 함께 썰매를 타고 오소리강변을 지나다 공비를 만났다. 이들은 돈을 빼앗으려고 위협하다 한 목사 일행이 기독교인들인 것을 알고 한 목사를 그 자리에서 총살하였다. 그 중 한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이 비보를 전해 주었다.

살아갈 길 막연하여 정든 조국과 고향을 떠나 북풍한설 몰아치는 이국땅에서 유리하던 동족들을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토록 잔인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야수와 같은 악마들 중에 우리 동포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할 말을 잇는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도 기독교가 공산주의자들과 손잡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 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어떤 부류일까?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운동축선교 박상원 목사

“하나님은 무슨 얼어죽을 하나님”
하나님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세월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고통의 쓴물을 마셨고 고생의 음식을 먹었으며 나를 죽이는 험겨운 결사전을 벌여야 했다.

나는 북한에서 하나님을 강패 두 목쯤으로 여기고 도적질과 싸움질을 일삼다 탈북하여 타국의 객이 되었다. 국경을 넘어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북한 정권을 향해 이를 갈았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와 함께 산막에서 지내던 탈북자 성철(가명)이 내가 불신자인 줄 알고 성경책을 주며 읽어 보라고 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충성한 대가가 타국 살이라는 사실에 화가 나 미칠 지경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소리에 악이 반쳐서 성경을 그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이 새끼야! 내 앞에서 개가 똥구멍으로 계란을 내똥다는 말 같지

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타국의 산중에서 숨어 사는 주제에 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한다고 목숨을 내걸고 할떡대다가 이렇게 산중에 틀어박히는 신세가 되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길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런 곳에 보내지도 않았을 거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구원이요 서원이요 하기만 해라. 당장에 그 주둥이를 찢어 놓을 테니!”

‘시어미 역정에 개 옆구리 찬다’고 영문도 모르는 성철에게 얼마나 험악하고 고약한 말을 인정사정 없이 해냈는지 성철이는 얼이 빠져서 그 후로 내 앞에서 밥숟가락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말로는 위로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그가 내민 성경책을 집어 들었다. 내가 성경책을 읽으면 그의 기분이 풀어질까 해서였다. 그런데 하필이면 누가

복음 23장 4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 또 화가 치밀었다.(계속)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모태원목사(예수전도인), 주선배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종원목사(웨스트시드니), 송정영목사(복음선대 공동대표), 권준희목사(평양교회), 신정현목사(서울대), 유관지목사(서울교회), 김민석목사(KCC공동대표)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지자
* 책의 목은 아래 연락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운동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요,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재고대량: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무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운동축선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런에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자동차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WHEN WE PRAY

그레이
블랙
네이비
차콜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only \$15.99 (개당)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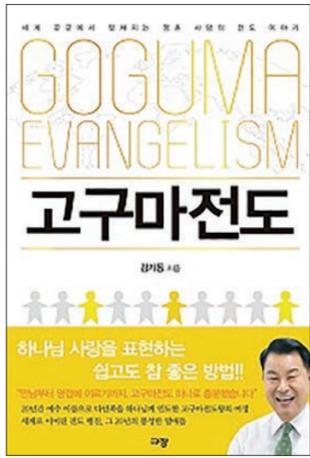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소장석 목사
신정호 목사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cool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쿨란출판사

‘고구마전도왕’,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신간 『고구마전도』



고구마전도
김기동
규장 | 295쪽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묵상하라

2000년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고구마전도’ 바람을 일으킨 김기동 집사. 20년이 흐른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신간 『고구마전도』는 김기동 집사의 이후 행보를 전한다. 그는 고구마전도왕으로 전국 각지 부흥회에 불러다니던 2000년대 초반, 뜻밖에도 미국 볼티모어의 한 한인교회로부터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받는다. 평신도로서는 파격적인 이 제안을 믿음으로 수락,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8년 동안 이 교회 성도들과 영혼구원의 열정으로 뿔뿔뿔 수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으며, 남침례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기회를 얻어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2011년, 기도 중에 소명을 받고 미 브레아에서 ‘소중함 교회’를 개척, 지금까지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고구마 전도’로 박사 학위(D. Min, 남침례신학교)를 받기도 했다.

이제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된 것이지만, 전도에 대한 열정은 여느 청년

년의 열정 못지 않게 뜨겁다. 책에서 그는 “전도는 이웃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며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미국에서의 사역도 전도의 열기로 활활 타오른 시간이었다. 그는 전도학교를 열어, 성도들에게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가르쳤다. 또 ‘익었는지 일단 찢어보기’, ‘하나님께서 익혀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요지로 하는 일명 ‘고구마 전도법’을 전수, 성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입을 열기 시작했고, 불신자 전도가 하나 둘 시작됐다. 첫 전도축제의 첫째 날, 교인 60명에 새신자 25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그날 이민자 2세였던 한 시각장애인 청년이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다음 날에는 그 청년의 가족 10여 명도 우르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 본당이 은혜로 가득 차자, 축제 마지막 날에는 교인 400명이 본당에 모여들었다고. 새신자도, 기존 신자들도 은혜에 힘입어 새로

워지는 시간이었다.

‘고구마 전도법’은 다민족 전에도 사용됐다. 당시 김 목사가 몸담고 있던 한인교회는 한인만 전도하고 있던 상황. 김 목사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그러자 성도들은 ‘다른 나라 사람 전도해봐자 우리 교회에 안 올 것’이라며 꿈쩍하지 않았다.

이에 김 목사는, 전도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가르쳤다. 전도는 ‘교

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몸소 다민족 전도를 실천해 보였다. 그러자 성도들도 김 목사를 따라서 ‘고구마 전도법’을 사용해 외국인들에게도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의 ‘고구마 전도법’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사람인 ‘익은 고구마’를 찾지만 하면 되는 것이 전도라고 본다. 익은 고구마를 찾으려면, 젓가락으로 고구마가 익었는지 찢어보듯이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데, 네 마디 말이면 충분하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마디 말로 ‘익은 고구마’를 금방 찾아낼 수 있고, 처음엔 익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익게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을 수도 있다고.

김기동 목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증인”이라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영혼 구원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한 번 찢어보라”고 말한다.



김기동 목사 © 소중한 교회

이민선 기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독교 신간 『예수의 기도』



마크 존스 © banneroftruth.org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저자 마크 존스(Mark Jones)의 신간 『예수의 기도』가 발간됐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생전에 드렸던 기도를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한다.

저자는 기독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연구”라고 쉽게 소개한 뒤, “우리 주님을 이해하려면 건전한 기독교를 통해 주님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건드린다. 예수님이 정말로 신(神)이라

면 어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는지 의아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식적이라고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는데, 단지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존스는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어서 자신을 주시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기도 하셨을까? 아니면 인간과도 본질이 같은 분이어서... 예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었기에 기도하신 것일까?”라고 물으면서, 자신은 후자 편이라고 밝힌다. 예수님은 ‘참 신’이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기에, 여느 인간과 같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거라고 말한다.

만약 예수님이 필요에 의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시험과 시련 앞에서 예수님은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수 있으며 실제로 도우시리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아 구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기도 한 분’인데, 정말로 필요라는 것이 존재했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성’으로 ‘인성’을 가리려는 시도에 대해, 저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신다. 이에 대해 존스는, 예수님의 이러한 ‘간청’은 “우리 구주의 필연적인 ‘인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시간에서 구출되기를 바라는 그분의 바람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면해달라고 간청하셨던 예수님은, 곧이어 ‘그 길을 가겠노라’고 의지를 표명하신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아셨기에 심히 괴로워하시면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요한복음 12장 27절)고 인식하시고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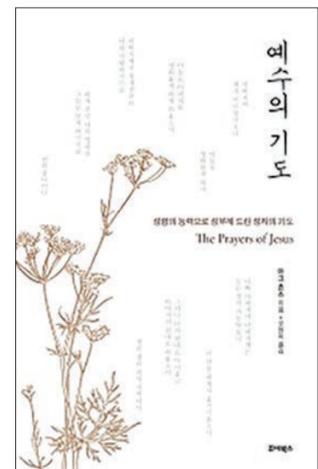
존스는 바로 이 대목에 예수님의

‘순종’이 있고, 그 순종의 진실성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진실한 인성을 통해 증명된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참혹함을 낱알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숨기지 않고, 혹은 신적 권세를 휘두르며 방어하지도 않으셨다. 그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맡김”으로써, 자신의 순종의 순전함을 드러내셨다.

존스는 이러한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순종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데 기독교 해설의 바탕을 짚는다. 몸이 찢기는 십자가의 고통한 가운데서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자 마크 존스는 레이던대학교에서 토머스 쿨윈의 기독교 연구로 박사학위(Ph. D.)를 받았으며, 현재 캐나다의 페이스장로교회 목사로 있다. ‘마크 존스의 예수 그리스도’ 등 저서를 통해 기독교를 가르치는데 힘쓰고 있다.

이민선 기자



예수의 기도
마크 존스 저, 오현미 역
조이박스 | 263쪽

예수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준다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나눔의 실천을 통해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월드쉐어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이티 소망 학교



한국전 참전 용사 후손 돕기(수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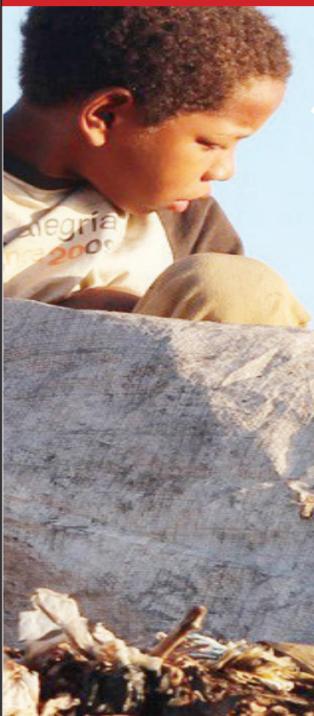
홈 리스 사역 지원



양로 병원 지원활동



투찌에 마을에 희망을!



세계 최빈국 아이티의 빈민촌 투찌에(Truitier) 마을!
쓰레기 마을에 형성된 투찌에 마을!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투찌에 마을을 살리는 희망의 팔찌를 판매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일감을 주고, 아동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는 팔찌 판매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의 노동비, 재료비, 탁송비 등을 제외한 판매 수익금은 투찌에 학교 건립과 투찌에 주민 생활 개선에 사용 될 것입니다. 투찌에 학교건물은 주일에는 교회로, 야간에는 장년 교양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 팔찌 1개 \$20
30개 이상 주문시
우편 등으로 배달됩니다.

- 문의: World Share USA
강태광 목사
(323) 578-7933